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예배 후 교육관에서 7월 임원회가 열립니다.

천안단비교회로 여름수련회를 간 아동부는 오늘 오후 3시에 교회로 돌아옵니다.

세월호 참사가 100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열 분의 실종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창 29:15~28 / 시 105:1~11
롬 8:26~39 / 마 13:31~33, 44~52

마14:13-21
-----------

오늘 식당 봉사 : 이영란 이현순 이소애 이소혜 이승진 이소순 강세기  
 다음 주 식당봉사 : 박혜경 조항미 김민화 이유리 김나경 박석희 이국노  
 오늘설거지봉사 : 청년부  
 다음주설거지봉사 : 2남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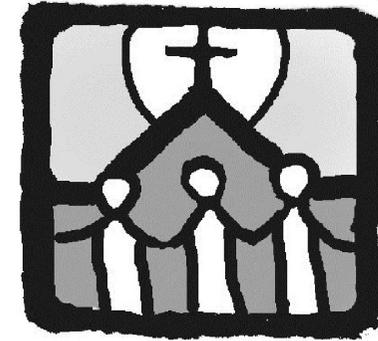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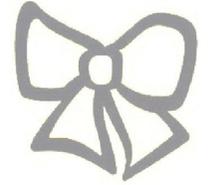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논바닥이 갈라지고 강에 녹조가 가득해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우리입니다. 주님께서 마침 하늘을 여시고 단비를 주셨습니다. 논밭의 곡식이 춤을 추고 강물이 푸르게 넘실거립니다. 주님, 성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도 은혜와 자비의 단비를 내려주시어 푸르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지난 목요일은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열 분이 돌아오게 하시고, 유가족들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찾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미정 집사  
박범희 권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권혁순 박혜경 김문주 김성우 박유경 김용진 박효선 김재환 김진선  
김주영 김중현 성귀옥 박규석 박경선 박병구 박예림 박준희 이기분  
방민 방준 변재민 이소혜 오미경 오미숙 오재형 임고운 우순덕  
윤성종 김윤정 윤수진 윤정덕 구성실 윤창서 은종인 이경남 이봉옥  
이상준 이주경 이준림 이종자 김창경 임승동 백혜숙 장기욱 장원호  
박성희 정복순 정현선 조현권 박아영 차혜심 노미향 최미자 최은미  
최재욱 이수정 한성건 정지혜 허호범 박성실 홍복선

### 감사헌금

김진현 김태정 김향자 박병구 심화섭 정영란 오미경 이유일 김미희  
이재문 전인섭 조현옥 주명재 한성자 무명11

### 생일감사헌금

권미정 박성희 오미경 이희원 최성애 한상익 정영선

### 녹색꿈헌금

박태웅 윤수진 윤미경 무명7

	백혜숙	박성희		
	신진식	최경미		
	장영숙	신영신		
	노순옥	진정숙		
	박홍재	박홍재		
	권미숙	박미영		
	김금순	김금순	숨	숨
	곽권희	윤수진		
	안홍숙	오현정		
	정영선	홍춘숙		
	박혜경	박혜경		
	김재홍	오자영		
	김재홍	송형운		
	이범석	이진영		
	이범석	곽상준		
	신진식	윤성중		

마음으로 읽는 글

## 풀과 생각

- 이병일

풀은 생각 없이 푸르고 생각 없이 자란다

생각도 아무 때나 자라고 아무 때나 푸르다

그 풀이 고요히 고요히 소슬함에 흔들릴 때

오늘은 웬일인지

소와 말도 생각 없는 풀을 먹고

생각 없이 잘 자란다고

고개를 높이 쳐들고 조용히 부르짖었다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장로 :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어두운 장막 안에 매몰되어 살지 마십시오. 밖으로 나와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공기를 마시며 새로운 약속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함께함'이라는 귀한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십시오.

아멘.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어두운 줄도 모르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다가가 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설교 : 이재훈 전도사	설교 : 신진식 전도사 기도 : 이형숙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홍 목사 이범석 목사	공동기도 박성실 권사	최희영 선생 김문주 집사

7	영접위원	박성실 허호범 김훈동 유경순 박경원 박시내
	헌금위원	한상익 장혜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믿음으로 읽는 글

## 빈센트 반 고흐의 편지

- 고흐의 편지 중 일부 발췌 -

1880년 7월

털갈이 시기란 새들이 깃털을 바꾸는 시기로, 사람의 경우로 말한다면 역경과 불행 같은 일이 닥치는 어려운 시기를 뜻하지. 우린 이런 털갈이 시기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거기서 벗어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런 일들은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것도 웃어넘길 일도 아니어서,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숨을 필요가 있단다. ...

사람들은 이따금 끔찍달짝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지. 끔찍한, 아주 끔찍한 새장과도 같은 무언가에 갇혀서. 하지만 해방이, 궁극적인 해방이 있음을 잘 안단다. 정당하든 그렇지 않든 더럽혀진 명성과 장애물, 주변상황, 불운, 이 모두가 사람들을 죄수로 만들지. 무엇이 우리를 윤희하고 산 채로 매장하는지 늘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창살이나 새장, 벽의 존재를 느낄 수는 있단다. 이 모두가 상상이며 환상일까? 그렇지 않은 거야. 나 자신에게 물어본단다. 맵소사, 이런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까? 영원히 계속될까? 이 감옥이 사라지게 하는 건 뭘까? 그건 바로 깊고 진지한 사랑이야.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사랑한다면 그 숭고한 힘과 강력한 마력으로 감옥의 문을 열 수 있겠지.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생명을 잃은 채 살아가는 거야. 연민이 새롭게 태어나는 곳에서 삶이 다시 피어난단다. 때로 감옥은 편견이나 오해 혹은 이런저런 것에 대한 치명적인 무지, 불신, 그릇된 수치심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지.

1882년 4월 15-27일

내가 그림 그리기를 멈출 수 없는 건 단지 그림쟁이의 손을 가지고 있어서야. 내게 묻고 싶단다. 처음 그림을 시작한 이후로 이 문제를 두고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의심하거나 망설이거나 흔들린 적이 있었는지. 내가 끊임없이 싸워왔음을 너도 잘 알 거야. 물론 싸움은 점점 더 치열해졌지만 말이다.

1882년 6월

예술은 셈이 많아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온통 독차지하고 싶어 하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그에게 바치고 나면 우린 이런저런 비현실적인 인간으로

취급받기 일췌여서 남는 것이라곤 쓸쓸한 뒷맛뿐이랄까. 뭐 그렇단다. 그래도 할 수 있지. 이대로 노력하면서 계속 싸워갈 수밖에.

1882년 7월 23일

내게 밝은 미래가 있을지 여부는 무엇보다 내가 하는 일에 달렸다고 믿어. 기력이 다하는 날까지 다른 어떤 길도 아닌 이 길로 묵묵히 투쟁을 계속해 나갈거야. 내 작은 창을 통해 자연의 면모들을 즐겁게 관찰하며 애정을 다해 성실히 그것들을 그릴 생각이지. 누군가로부터 방해로 받으면 그저 방어하는 걸로 만족할 테다. 이 정도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니 그 무엇도 나를 이 길에서 돌려세울 수 없을거야.

1882년 10월 1일

스파위스트라트 어귀에 있는 무어만 국립 복권판매소를 기억하니? 어느 비오는 날 아침에 그 옆을 지났는데 사람들이 복권을 사기 위해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군. 대부분은 늙은 여자들이고, 무얼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짐작이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 하지만 해야 할 일과 걱정거리를 태산처럼 안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임에 분명했지.

‘오늘의 추첨’에 그토록 큰 관심을 보이는 이들 무리를 그저 피상적으로 바라보면 너나 나 같은 사람은 웃지 않을 수 없을 거야. 우리 두 사람에게 복권은 완전히 관심 밖의 것이니까.

그러나 이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또 그들의 얼굴에 나타난 기다림의 표정이) 내 마음을 움직였단다. 그들을 그리는 동안 그 존재가 내게 처음보다 훨씬 크고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지.

1882년 12월 3-5일

너도 알다시피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인물들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워. 실제로 이런 모습이 자주, 아주 자주 그러지곤 하지. 일하는 인물들의 모습보다 더 자주 말이다. 휴식 중인 인물을 그리고 싶다는 유혹은 늘 있게 마련이지. 동작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누가 봐도 전자는 더없이 ‘매력적인’ 소재임이 분명하니까. 그렇다고 이런 ‘매력’이 진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겠지. 삶에는 휴식보다 고된 노동이 더 많다는 게 진실이니까. 이런 내 생각을 너도 이해할 거야. 난 진실의 편에서 작업하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 빈센트 반 고흐 (H. 안나 수 엮음)